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섬기기

사도행전 21:27-36 KRV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 말로, 어떤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 덕분에 저는 AMI 목회자 컨퍼런스를 위해 치노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면서 큰 은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정말 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강력한 말씀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풀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투옥이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역경과 박해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그 새로운 사역은 감옥 생활을 포함합니다. 감옥 생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론 감옥은 우리 모두의 삶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교도소 산업 복합체는 실제로 존재하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저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전통적인 마피아 영화나 갱스터 영화이며, 특히 이탈리아 마피아를 다룬 영화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갱스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피아에게는 묘하게 사람을 끄는 낭만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도둑질을 하지만 서로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러한 규율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메르타’라고 불리는 침묵의 규율입니다. 오메르타는 시칠리아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며, 마피아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붙잡히더라도, 마피아 조직원이나 윗선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범자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동료들에 관해 말하지 않고, 쉽게 말해 그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1년 형을 살고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불편일 뿐이었고, 곧바로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메르타의 규율을 영원히 바꾸고, 우리가 알고 있던 조직범죄를 사실상 무너뜨린 것이 바로 **RICO**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면 체포될 수 있고, 1년 정도가 아니라 단지 실제 범죄자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50년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넘기거나 범죄에 관해 증언하면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메르타의 규율을 지키느냐 깨뜨리느냐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과 50년 형을 받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은 조직범죄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손목을 가볍게 맞는 정도의 처벌은 우리 모두가 견딜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죄수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계점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실상 죄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가 마피아의 일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많은 마피아 조직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섬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이성적 판단에 반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옥에 갇힐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몇몇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 직면한 적도 없고, 실제로 감옥 생활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목사님은 왜 “감옥에 갇힌 상황에 직면할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의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자유 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선택한 길이며,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명이 향해 가고 있던 지점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이 세상에서의 투옥, 곧 예루살렘에서의 투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성전 문까지 닫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황량한 세상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권력이나 영향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으며, 사실상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자리입니다. 감옥으로 추방되어 권리와 자유와 살아갈 힘을 모두 빼앗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이 닫힌 것은 문자적인 배척일 뿐 아니라 상징적인 배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 우리 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섬기며,

자신이 죄수로서 배우게 된 것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왜 그 마피아 부하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를 잃게 되고, 그 자유와 함께 자기 삶을 통제할 힘도 잃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문을 닫았을 때, 바울은 실제 감옥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이 알고 지내던 종교 세계로부터도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성전 밖으로 쫓겨날 수 있으며, 세상은 우리의 힘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주는 자유로부터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갇히고, 추방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이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감옥에 있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 부활을 이루신 그 동일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어졌다고 바울은 확신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합니까?

이 능력은 우리에게 폭발적이고 기적적인 인내의 능력,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줍니다! 이러한 능력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우리가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내어드림을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세상의 죄사슬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다는 소식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저는 사랑에 관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적으로 감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감옥은 결코 그러한 역할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감옥은 항상 처벌의 장소였으며, 특히 긴 형기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도록 만들어져 왔고, 많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엄밀히 말해 감옥 안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로마에서 형벌의 일부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실제로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심지어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쉽고 분명한 대답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Eros**)—낭만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Philia**)—형제애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스토르게(**Storge**)—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과 같은 가족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Agape**)—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 주시는 것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디모데를 격려할 때 사용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여러분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을 죽이려 하더라도 계속 살아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에게 던지는 어떤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유지되는 경건하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붙잡혀 투옥과 확실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사랑의 영, 곧 아가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도, 형제애도, 가족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박해하려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자신이 추방되어 들어가게 될 감옥과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경건한 사랑이 부족한 세상, 경건함이 전혀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와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성령께서는 그 감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아가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과거와 지난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보여 주시는 이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 경건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고, 감옥에 가두려 하고, 우리가 따르는 분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고, 가두고,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곳에서는 항상 누가 자신을 공격하려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살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려고 하며,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누구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묘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삶과 매우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능력은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열매에 관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곧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1장 32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성경이 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들의 매질을 그대로 견뎠다는 뜻입니다. 사실 폭도들이 여러분을 때리고 해치려고 할 때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가장 먼저 드는 본능은 그 공격을 피하고 자신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투옥된다는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에는 똑바로 생각하기 어렵고,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맞서 싸우며 그 투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 주고, 또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를 살펴봅시다.

소프로니스모스(**Sophronismos**)—절제로 번역되는 단어이지만, 훈련과 건전한 정신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 절제를 연습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멈추거나 아침에 일어나 체육관에 가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훈련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과 정죄가 없는 건전한 정신과 깨끗한 양심을 자신 안에 기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도들이 여러분을 때리려 하거나,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여러분의 눈앞에서 문을 닫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부터 쫓아내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이유로 종신형과 확실한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절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이 절제와 영적인 훈련과 건전한 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절제가 부족하면 우리는 순복하려 하지 않고 정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경과 고난과 투옥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나미스, 아가페, 소프로니스모스, 곧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맞서 싸우거나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순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부르심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참된 진리, 곧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자신도 한때 속해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성전 밖으로 내쫓고, 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죽을 정도로 맞고 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구해 준 바로 그 로마인들이 몇 년 후 결국 로마에서 바울의 목을 베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생명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운명적인 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박해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생명과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생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이 세상의 무기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 곧 두나미스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불의에 맞서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노와 복수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곧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반영하는 너무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모함과 폭력과 파괴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성령께로부터 오는 건전한 정신과 훈련과 절제, 곧 소프로니스모스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고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받도록 부름받았으며, 실제로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고난받도록 부름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이 세상에서 부와 보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늘의 상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고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보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많은 월급과 자녀의 성공과 더 큰 집과 더 많은 은퇴 자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기를 추구하며 항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BVC**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시리즈를 잠시 쉬고,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에 관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돈과 시간과 삶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 곧 시간과 삶과 돈은 모두 바울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무기보다 성령의 은사인 두나미스(**dunamis**, 능력), 아가페(**agape**, 사랑), 그리고 소프로니스모스(**sophronismos**, 절제와 건전한 마음)를 선택했습니다. 성령이 사도바울에게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고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죄수입니까? 세상의 죄수가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던 삶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적인 나라에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